

Dubai World 채무상환 유예 발표

1. 진행 경과

- 두바이 재무부는 11.25일, 두바이 정부 소유 최대 국영 부동산개발 회사인 Dubai World*와 자회사인 Nakheel의 채무를 내년 5.30일까지 6개월간 유예(Standstill)해 달라고 채권단에 요청

* Dubai World는 Dubai Holdings, Investment Corporation of Dubai(ICD)와 함께 두바이 정부소유의 3대 지주회사로 인공섬(Palm Island)를 개발하는 Nakheel, 세계 3위 항만운영 업체인 DP World, 투자사인 Istithmar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음

- Dubai World의 부채규모는 약 600억 달러로 두바이 총외채 800억 달러의 약 75%수준임. 이중 12.14일 만기가 돌아오는 자회사 Nakheel의 35억 달러를 포함, 내년 5월말까지 상환해야 되는 채무가 56억 8천만 달러이며, 향후 3년내 만기가 도래하는 외채규모가 50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짐
- 채무상환유예 발표 이후, 두바이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전날 318bp에서 11.25일 440bp로 대폭 상승

2. 현지 언론보도 및 분위기

- 두바이 정부는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현지 이슬람 최대 명절인

Eid Al Adha(11.26~28일)와 UAE 건국기념일(12.2일) 연휴*(11.26~12.5일)가 시작되기 전날인 11.25일 증시가 마감된 직후 Dubai World의 채무상환 유예를 발표

* 11.26~12.5일까지 UAE 모든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휴무

- 두바이 정부의 채무상환 유예 발표 이후, 11.26일 현지 신문들은 두바이 정부가 Dubai World, Nakheel의 채무를 6개월간 유예해 달라고 채권단에 요청하였으며 Dubai World가 경영효율을 위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하였다는 내용을 1면 중간기사 정도로 큰 비중이 없이 보도
- 11.26일부터 이슬람국가의 Eid Al Adha 연휴가 시작되었고, 정부의 언론통제 등으로 인해 두바이 현지 분위기는 크게 혼란스러운 상황은 아님

3. 우리나라 금융기관, 건설기업에 미치는 영향

-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Dubai World 및 Nakheel사에 대한 직접적인 여신 및 투자가 없어, 동 채무유예선언에 대한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며,
- 우리 건설기업으로는 삼성물산(건설부문)이 Nakheel사의 프로젝트 2건 (약 4.2억 달러)를 진행중에 있으나, 지난 11월초부터 공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고, 기성대금도 대부분 수령하여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두바이 총영사관 및 삼성물산 담당자 확인)

삼성물산(건설 부문)의 Dubai World 관련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금액(억불)	공정률	비고
Palm Jebel Ali 교량건설	3.5	51% (11.10월 완공 예정)	- 11월초 공사중단, - 기성대금 대부분 수령
Waterfront 교량건설	0.7	6개 교량중 3개 완공 (10.2월 완공 예정)	- 11월초 공사중단, - 기성대금 대부분 수령

* 삼성물산이 두바이에서 시공중인 세계 최고층 빌딩인 버즈두바이(Burj Dubai)의 발주처는 두바이정부의 다른 공기업인 Emmar Properties로 Dubai World와는 무관하며 예정대로 내년 1.4일 준공 예정임

- 두바이에 진출한 성원건설, 반도건설, 신성건설 등 우리 중소건설사들의 경우 두바이 정부산하기관인 도로청(Road & Transport Authority: RTA)의 토목공사 또는 자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공사 중단 및 지연 등의 간접피해가 우려됨
- 최근 현대건설, SK건설,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등 우리기업들이 UAE에서 수주한 루와이스 프로젝트는 UAE 아부다비 정부 발주 프로젝트로 이번 사태와는 무관함
- 일본 건설기업들의 경우, 두바이 인공섬(Palm Island) 프로젝트 등 Dubai World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공사대금이 약 8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임

4. 향후 전망

- 두바이정부의 이번 채무상환유예 요청은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필요시 정부재정을 직접 투입하겠다는 의미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는 해석도 일부 있으나, 두바이 및 UAE 전체의 대외 신인도 하락은 불가피하며,

- 특히, 지난 9월과 11월초 두바이 통치자인 Sheikh Mohamed가 두바이 채무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어, 두바이 공기업의 채무상환을 정부가 보증할 것으로 믿었던 시장 및 투자자들에게 이번 발표가 충격적이며, 앞으로 상당기간 두바이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번 Dubai World의 채무상환유예와 관련된 채권단에는 HSBC 등 외국계 금융들도 상당수 있지만 Emirates NBD 등 UAE 금융기관들이 채권단의 주축을 이루고 있어 두바이정부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며,
- 이번사태가 두바이의 몰락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향후 UAE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UAE 수도이며 막대한 석유수출로 풍부한 재정을 보유하고 있는 아부다비정부*가 본격적으로 금융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UAE는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등 7개 토후국 연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부다비가 UAE 석유생산량의 95%를 차지

[두바이사무소 제공]